

정제마진 8주 연속 0달러 상회... 정유업계 실적개선 '아득'

첫째주 정제마진 배럴당 1.6달러
통상 손익분기점 4~5달러 수준
지속된 불황에 연속 적자 우려

국내 정유업계가 올해 들어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의 수익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정제마진은 최근 들어 개선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3월 셋째 주부터 '마이너스'를 오가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그런데 9월 셋째 주 이후부터 정제마진은 8주 연속 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하향 곡선을 그리던 정제마진이 다시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달 첫째 주 정제마진은 배럴당 1.6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유업계가 수익성을 제고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



GS칼텍스 여수공장 전경.

이다. 정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정제마진의 손익분기점을 4~5달러로 보기 때문이다. 올해 4.0달러를 기록했던 2월 둘째 주를 제외하고, 주간 기준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던 적은 없다. 이는 정유사들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적자를 보면서 원유를 정제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업황 악화에 국내 정유사들도 가동률을 줄이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공급 대비 낮은 수

요에 맞춰 원유의 정제량을 줄인 것이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에서 정제처리된 원유량은 7661만6000배럴로, 2014년 9월 7512만5000배럴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8732만9000배럴 대비해서도 약 12% 감소한 수준이다.

국내 정유 4사는 최근 들어 적자 폭은 줄고 있으나, 여전히 실적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정유

4사의 영업손실은 연결기준 약 5조원에 달한다. 정유사별 적자는 각각 ▲SK이노베이션 2조2149억원 ▲에스오일 1조1716억원 ▲GS칼텍스 1조1651억원 ▲현대오일뱅크 5500억원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동 수요가 줄고, 산업계가 침체하는 등 정유시장의 수요가 대폭 줄어든 탓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3분기도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하고 전 정유사가 적자를 면치 못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유일하게 지난 2분기와 3분기 연속 각각 132억원, 352억원의 흑자를 냈다. 혼합자일렌을 주로 생산하는 현대케미칼과 현대오씨아이 등 자회사의 비정유 사업에서 선전한 것이 그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SK이노베이션과 에스오일의 경우, 각각 290억원, 9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세 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또, GS칼텍스는 이달 중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나, 업계에서는 적자를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열릴 예정

인 OPEC+(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 회의에서 당초 내년 1월부터 원유 감산량을 현재의 하루 770만 배럴에서 580만 배럴로 줄이기로 했던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유가 하락세가 나타남에 따라, 현 수준의 원유 생산량을 내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OPEC+는 지난 4월 원유 수요가 급감해 유가가 폭락하자, 긴급회의를 열어 감산에 합의한 바 있다.

삼성증권 조현렬 연구원은 최근 정제마진의 흐름에 대해 "크게 의미는 없다. 마진이 그냥 계속 안 좋긴 한데, 7~8월까지 크게 빠졌다가 9~10월에 좀 회복되고 나서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여전히 유럽 쪽 락다운(국가 봉쇄) 때문에 수요 약세는 지속되고 있다"라며 "일단 백신이 나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줄어들면 들수록, 정유 수요가 올라오는 것은 맞으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클래스는 영원”... 디자인·안정감에 감탄 절로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클래스'

10세대 장점 승계, 고급스러움 강조
최고출력 299마력·토크 40.8kg·m

'주행감·고급스러운 디자인·공간편의성 모두 가졌다.'

차량을 구매할 때 누구나 기준을 세워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한다. 디자인부터 안정적 주행감, 공간 효율성 등 다양하게 고민한다.

메르세데스-벤츠가 4년 만에 부분변경 모델로 내놓은 준대형 세단 E클래스는 이같은 고민을 해결해준다. 이번에 선보인 '더 뉴 E클래스'는 국내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한 10세대 벤츠 E클래스의 장점을 승계하며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했다.

우선,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지만 더 뉴 E클래스는 고급스러움을 한층 강조했다. 2개의 파워돔과 새로운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한층 깔끔해졌으며 전체적으로 역동적인 인상을 준다. 후면부 테일램프 디자인은 트렁크까지 파고드는 분할형 테일램프를 적용해 시각적으로 넓고 안정적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클래스.

인 느낌을 선사한다.

실내는 두 개의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와이드 스크린 콧핏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끈다. 또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곡선과 우드와 가죽을 아낌없이 사용해 고급감을 더했다. 아울러 차세대 지능형 스티어링휠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제공한다.

차량의 주행성능을 점검하기 위해서 울 옥션강남센터를 출발해 경기도 포천시 일대까지 왕복 약 100km 구간을 주행하며 더 뉴 E350 4매틱과 E220d 4매틱의 AMG라인을 탑승했다. 두 모델 모두 벤츠 고유의 안정감 있는 주행감을 담고 있었다.

E350은 최고 출력 299마력, 최대 토크 40.8kg·m의 힘을 내는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에 48볼트 전기 시스템인 EQ 부스트 기술을 더해 고속 구간에서의 가속력은 뛰어났다. 스포츠 모드를 적용하자 스티어링휠의 움직임은 민첩해지고 더욱 경쾌하게 속도를 끌어올렸다. 순간 치고 나가는 폭발적인 퍼포먼스보다 부드럽고 편안한 드라이브가 매력적이었다.

주행중 가장 눈길을 끄는 기능은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이다. 이는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지도의 '항공뷰'와 비슷한 이미지로, 교차로에 접어들면 반응한다. 이전에도 3D 이미지를 통해 복잡한 교차로에서 안내가 나왔지만 AR 내비게이션은 현실의 화면을 보여줘 길 안내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여줬다.

/양성문 기자 ysw@

SKT,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개시

서귀포시-한전과 사회안전망 강화

SK텔레콤은 서귀포시, 한국전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1인 가구 안부살핌'은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개발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로, SKT와 한전이 지난 2년간 함께 개발한 전력, 통신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다. 양사는 이번 솔루션을 통해 지자체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력, 통신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동의한 서귀포 거주 가구에 제공되며 SKT는 서귀포시, 한전과 함께 취약계층 1인 가구 전반에 대한 사



SK텔레콤 홍보 모델이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SKT

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가정 내 전력 사용 패턴을 AI 기반 솔루션으로 분석한 뒤 시간대별 ▲통화 ▲문자발신 여부 ▲데이터 사용량 등의 통신 데이터와 결합해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서귀포시의 복지담당자에게 알림을 전달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화학, EBRD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유럽부흥개발은행)

전기차 보급 기여·환경개선 성과 인정

LG화학의 유럽 폴란드 공장이 지속가능경영의 모범사례로 확실한 인증을 받았다.

LG화학은 10일 유럽 국제 금융기관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매년

진행하는 '지속가능성 어워드'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유럽 전기차 보급에 크게 기여하며 동시에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LG화학은 연말까지 폴란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생산 능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폴란드 공장.

력을 65GWh 이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SK아이이테크, 첫 해외 생산거점 마련

중 창저우에 분리막 공장 가동

SK이노베이션의 소재사업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중국 창저우에 첫 해외거점을 마련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중국 창저우에 완공한 분리막 신규 공장을 본격 상업 가동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계열 전사가 과감한 투자로 정유화학 중심 비즈니스를 배터리 및 소재로 확장하는 '딥체인지' 노력의 결실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18년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창저우에 첫 해외거점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3월부터 연간 생산능력 3.4억㎡ 규모의 분리막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올해 8월 초 창저우 분리막 공장

을 완공하고, 3개월 간 시운전을 거쳐 설비를 테스트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해외 첫 생산거점을 가동함에 따라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크게 높게 됐다. 특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국 현지에서 명품 분리막을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몰려드는 주문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이번 창저우 공장 가동으로 총청부도 증평에 가동 중인 연산 5.3억㎡의 분리막 공장을 포함해 생산능력을 총 8.7억㎡ 규모로 높였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중국과 폴란드에 건설 중인 해외 공장들을 오는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